

**2021년 3분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BNK금융그룹의 CFO를 맡고 있는 정성재 전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제한되다 보니 직접 뵙고 인사 드리지 못한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오래간만에 시장참여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3분기 BNK금융그룹의 경영실적에 대해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p) 2021년 3분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2021년 3분기 누적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960억원, 66.2% 증가한 7,434억원을 시현하였으며,

3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2,754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자회사들 모두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자회사들의 이익창출 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그룹 정상적 순이익 수준도 한단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손익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분기 누적 그룹 이자이익은 양행과 캐피탈의 이자수익자산 확대와 순이자마진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2,644억원, 16.3%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부문이익은 계열사들의 PF수수료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57억원, 37.4%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부문이익은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관련 이익의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449억원, 8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부문입니다.

3분기누적 그룹 판관비는 전년동기대비 808억원, 8.1%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 영향으로 양행 판관비는 감소 하였으나,

증권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지급이 전년동기대비 596억원 증가하며, 그룹 판매관리비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증권 성과급 증가분 제외 시 그룹 판매관리비 증가율은 2%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 총당금전입액은 2,8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8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전년도 코로나충당금 적립 기저효과로 양행 크게 감소하였으나, 비은행자회사들은 자산증가/부실채권상각 등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은 자회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은행부문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양행의 이자이익 증가 및 충당금전입액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912억원, 47.1%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은행 순이익은 3,6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8% 증가하였고, 경남은행은 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6%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은 순이익은 캐피탈과 투자증권 실적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1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 순이익은 1,108억원으로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상승과 유가증권 관련익 및 PF수수료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73.7%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증권 순이익은 981억원으로 PF수수료 등 수수료수익 증가와 유가증권 관련 수익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71.7% 증가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은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로 견조한 이익 증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산운용은 수탁고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와 고유자산 운용이익 상승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이익 중심의 이익 성장과 철저한 비용 관리를 통해 그룹 수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성

3분기 그룹 NIM은 1.91%로 전분기대비 1bp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은행이 1.94%로 2bp 하락한 반면, 경남은행은 1.86%로 1bp 상승하였습니다.

금통위의 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금리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신금리는 금융채금리 반등에도 부산은행 정리채권이자 등 전분기 일회성 요인 소멸로 반등 제한되며, 그룹 분기 NIM은 1bp 하락하였습니다.

4분기 그룹 NIM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로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여신금리는 개선세가 전망되나,

당국의 유동성규제 완화조치 종료 예고로 수신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어 NIM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통위 25bp 기준금리인상은 양행의 연간 기중 NIM에 4bp 이상 상승 영향을 미치며,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과 리프라이싱 주기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도 NIM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3분기 부산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년말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경남은행은 10.8%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양행 모두 비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산은행이 11.4%, 경남은행은 8.0%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산은행이 13.3%, 경남은행은 16.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으로 4분기 대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3분기 그룹 NPL비율은 0.46%로 전년말대비 24bp 하락하였고, 그룹 연체율 역시 0.33%로 전년말대비 15bp 하락하였습니다.

양행의 건전성 지표는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과 지역의 부도 감소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의 NPL비율은 0.95%, 연체율은 0.73%로 선제적인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건전성지표는 업종내 매우 우수한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총당금전입액은 높은 여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368억원 감소함에 따라,

그룹 누적 Credit Cost는 0.38%로 전년동기대비 12bp 하락하였으며, 올해 들어 안정적인 수준으로 대손비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입니다.

3분기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11.44%로 큰 폭의 자산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증가/그룹내부등급법 적용으로 전년말대비 164bp 상승했습니다.

연말 그룹보통주자본비율은 이익증가에 따른 배당금증가 등 감안해도 경영계획 목표인 11% 이상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배당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창출력 확대와 은행의 수익성 회복으로 경영계획을 크게 초과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단계 높아진 자본비율과 큰 폭의 실적개선을 바탕으로 배당 성향상향 등 주주가치제고 위한 노력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과거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올해 22~23% 수준의 배당성향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당사에 대해 시장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